Digital Conflict Intelligence Report

1 억 4,500 만 회 확산… ‘이란 전쟁’ 온라인 여론 조작 실체

이란 연계 허위정보 캠페인 및 글로벌 정보전 구조 분석

- 발행일 : 2026년 4월
- 발행자 : 사이브라 코리아 (Cyabra Korea)

Cyabra

1 억 4,500 만 회 확산… '이란 전쟁' 온라인 여론 조작 실체

이란 연계 허위정보 캠페인 및 글로벌 정보전 구조 분석

사이브라 코리아 2026. 4. 6.

Executive Summary

본 분석 결과, 'Operation Epic Fury / Roaring Lion War'를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 담론은 조직적으로 설계된 대규모 허위정보 캠페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캠페인은 수만 개 규모의 가짜 계정 네트워크와 AI 생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3 만 7 천 건 이상의 콘텐츠와 1 억 4,500 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확산력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통을 넘어 특정 내러티브를 대중 인식에 구조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산된 주요 메시지는 이란을 군사적·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행위자로 묘사하는 동시에, 적대 세력을 약하거나 기만당한 존재로 프레이밍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AI 생성 영상,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본 캠페인은 자연 발생적 확산이 아닌, 동일 콘텐츠 반복, 해시태그 클러스터, 동기화된 게시 패턴 등 명확한 조직적 특징을 보이며, 과거 이란 연계 정보작전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본 활동이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설계·운영되는 정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1. 분석 개요 및 방법론

사이브라(Cyabra)는 AI 기반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게시 빈도, 언어 패턴, 네트워크 행동, 콘텐츠 독창성, 참여도 등 500 개 이상의 행동적·맥락적 신호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계정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고,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비정상적 활동(비진정성 행동, 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을 식별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분쟁과 관련된 AI 생성 콘텐츠, 게시물, 영상, 해시태그 및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였다.

2. 주요 발견사항

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특징이 확인된다.

- 대규모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확산 구조
- AI 생성 영상 및 딥페이크를 활용한 시각 중심 정보조작
- 동일 내러티브의 반복 및 알고리즘 기반 확산 최적화
- 특정 시점 집중 게시를 통한 담론 장악 전략

특히, 해당 활동은 이란을 분쟁의 지배적 행위자로 묘사하는 단일 전략적 메시지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3. 온라인 정보 환경 개요

2026 년 2 월 28 일 이후 분쟁이 확대되면서 소셜미디어는 주요 정보전 공간으로 기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자발적 논의와 병행하여 조직적으로 기획된 AI 생성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포되었으며, 이는 전쟁 상황에 대한 대중 인식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TikTok 을 중심으로 한 숏폼 콘텐츠는 빠른 확산 구조를 기반으로 허위정보의 대규모 유통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내러티브 분석

4.1 핵심 내러티브 구조

본 캠페인은 세 가지 핵심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이란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주장
- 이란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 이란이 상대국을 전략적으로 기만했다는 주장

이러한 내러티브는 상호 결합되어 이란의 군사적·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4.2 군사적 우위 강조 내러티브

AI 생성 딥페이크 영상은 이란이 주요 국가 및 전략 자산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활용된다.

해당 콘텐츠는 실제 사건 일부를 차용하거나 완전히 조작된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전쟁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4.3 기술적 우위 과장 내러티브

대규모 폭발 장면, 지하 기지, 대량살상무기(WMD), 스텔스 항공기 등의 시각 콘텐츠는 이란의 군사 기술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특히 B-2 폭격기를 모티브로 한 AI 생성 콘텐츠는 상징적 군사 자산을 차용하여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전략적 메시지 구조를 보인다.

4.4 정보전 및 기만 능력 내러티브

일부 콘텐츠는 실제 전장 영상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여, 이란이 상대국을 기만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군사적 손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상대국의 무능성을 부각시키는 이중적 목적을 가진다.

5. 확산 구조 분석 (Impact Analysis)

본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규모의 확산을 보였다.

- 총 콘텐츠: 37,000 건 이상
- 총 조회수: 1 억 4,500 만 회 이상
- 총 참여: 940 만 회 이상

플랫폼별로는 TikTok 이 핵심 확산 채널로 확인되며, 전체 확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Facebook 과 X 는 보조 확산 채널로 작동하며, 다양한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가시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6. 조직적 운영 패턴 (Coordination Analysis)

본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조직적 특징을 보인다.

- 동일 내러티브 반복 확산
- AI 생성 콘텐츠 및 캡션 재사용
- 해시태그 클러스터 기반 확산
- 특정 시간대 집중 게시 (Burst Posting)

이러한 패턴은 중앙 통제 기반의 정보조작 캠페인 구조를 나타낸다.

7. 과거 작전과의 연속성 (Source Analysis)

본 활동은 과거 이란 연계 허위정보 캠페인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2024 년 이란-이스라엘 분쟁 이후 확인된 메시지 전략, 해시태그, 확산 구조와 일치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활동이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정보전 전략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8. 결론

본 분석 결과, 해당 허위정보 캠페인은 AI 기술과 조직적 계정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글로벌 온라인 담론에 구조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간 내 대규모 확산이 가능하며, 분쟁 상황에서 정보 환경을 왜곡하고 대중 인식을 재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본 활동이 지속적인 전략 하에 운영되는 정보전 구조임을 보여준다.

INTRODUCTION

접근방식

사이브라(Cyabra)의 AI 기반 탐지 기술은 게시 빈도, 언어 패턴, 네트워크 행동, 콘텐츠 독창성, 참여도(Engagement) 역학 등 500 개 이상의 행동적·맥락적 신호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별 프로필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고,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비정상적(비진정성)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

사이브라(Cyabra)의 기술은 정부, 기업 및 글로벌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와 가짜 또는 조작된 프로필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하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조직적 허위정보(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하여 친이란(pro-Iran) 내러티브를 확산하는 AI 생성 콘텐츠, 게시물 및 영상과 함께, 해당 캠페인과 연관된 주요 키워드 및 해시태그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사항

1. 이란은 수만 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하여 AI 로 생성된 영상을 소셜미디어 전반에 확산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전쟁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1 억 4,500 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2. 해당 캠페인은 단일한 전략적 목적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란을 분쟁에서 지배적이고 승리한 세력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적대 세력은 약하고 패배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가진다.
3. 가짜 프로필들은 동일한 키워드 및 해시태그의 반복 사용, 동기화된 게시 패턴, 유사 콘텐츠의 반복 확산 등 중앙 통제 기반의 조직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확한 행동적 특징을 보인다.
4. 해당 캠페인은 사이브라(Cyabra)가 이전에 식별한 이란 연계 허위정보 작전과 행동 및 내러티브 패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정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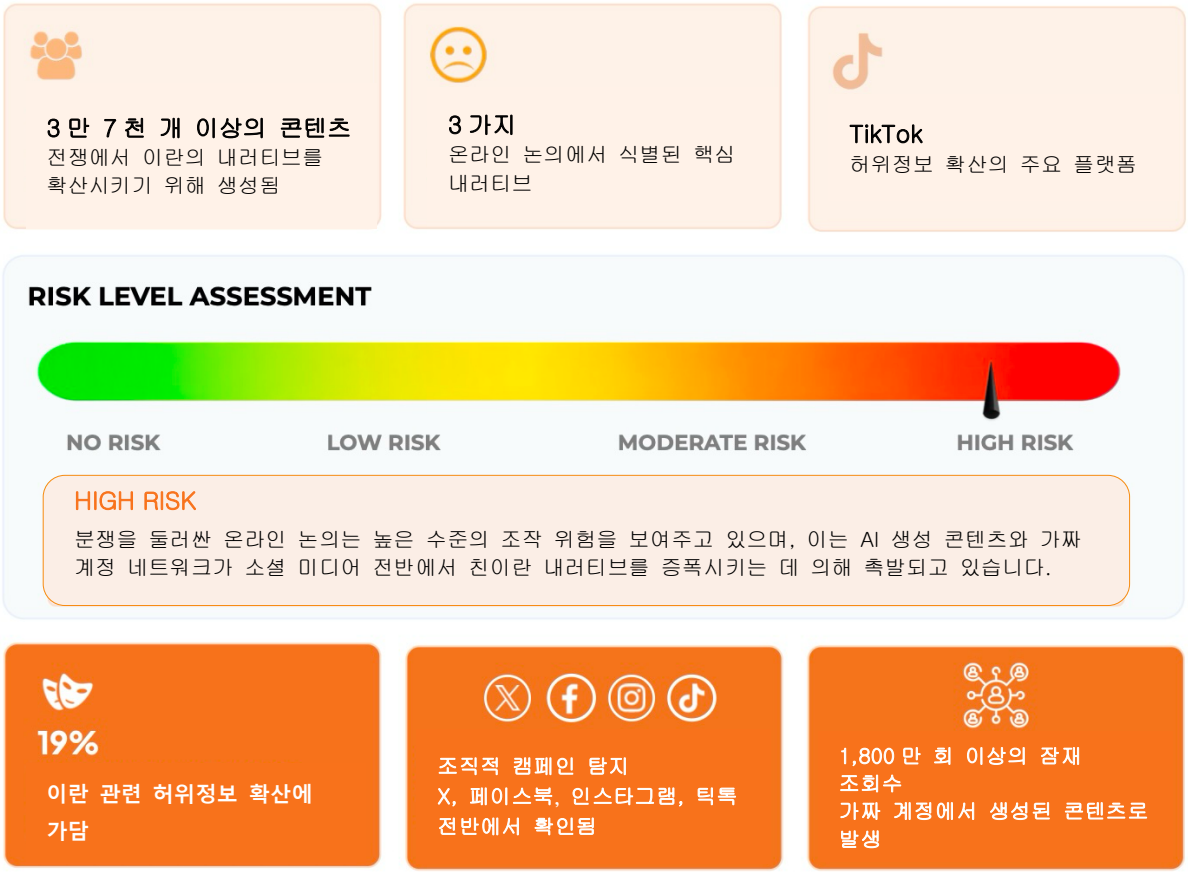
HIGH-LEVEL INSIGHTS

이란 주도의 허위정보 활동, 온라인 신뢰성을 위협

2026 년 2 월 28 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 및 미사일 역량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미국이 개입하고 추가 국가들이 분쟁에 가담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는 분쟁의 주요 전장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되며, 온라인에 유통되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이란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는 친이란(pro-Iran)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이란이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게시물, 이미지, 영상이 대량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발적 논의와 병행하여 조직적으로 기획된 캠페인과 AI 생성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허위정보 확산과 함께 전쟁에 대한 대중 인식 형성에 구조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Go to Conclusions & Next Steps

*분석 기간: 2026 년 2 월 28 일 ~ 3 월 7 일
*분석 대상 플랫폼: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NARRATIVE ANALYSIS

이란 프로파간다는 세 가지 핵심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전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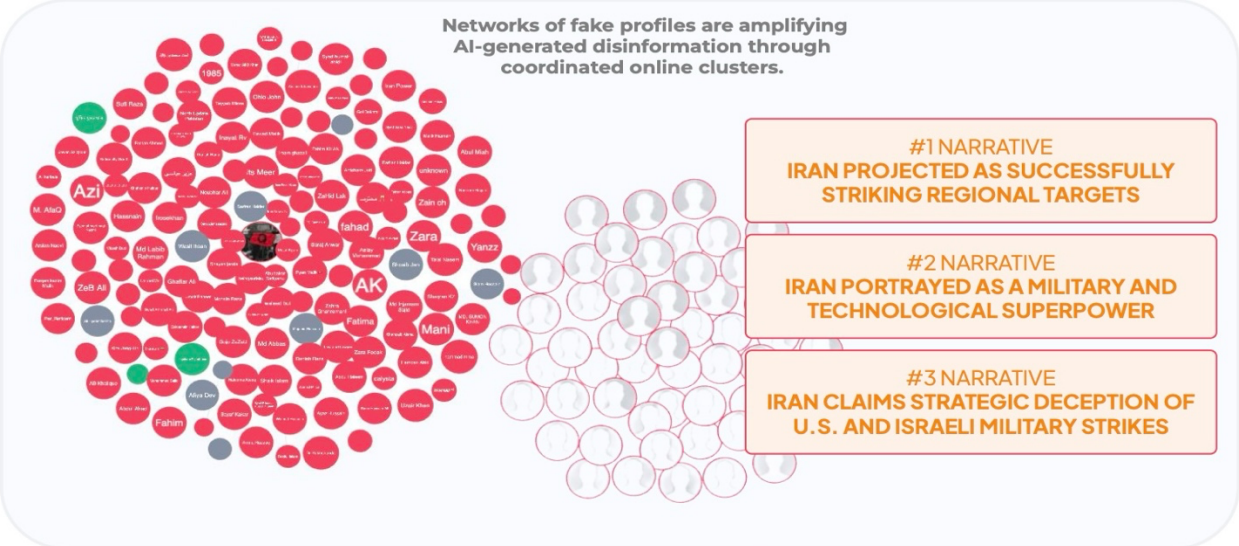
진행 중인 분쟁 상황에서 이란을 둘러싼 온라인 논의는 세 가지 핵심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적 친이란 허위정보 캠페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캠페인은 AI 생성 콘텐츠, 딥페이크, 합성 미디어를 활용하여 실행되는 구조를 보인다.

해당 캠페인은 명확한 선전 목적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란을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현재의 충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배적 행위자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친 조직적 확산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는 대중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의 현실에 대한 인식 왜곡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1 내러티브: 이란이 지역 전반에서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주장
#2 내러티브: 이란이 강력한 군대와 고도로 발전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3 내러티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기만하여 유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

이러한 내러티브는 상호 결합된 구조를 형성하며 이란의 온라인 정보전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선전 콘텐츠를 통해 국가의 군사적·기술적 우위 이미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NARRATIV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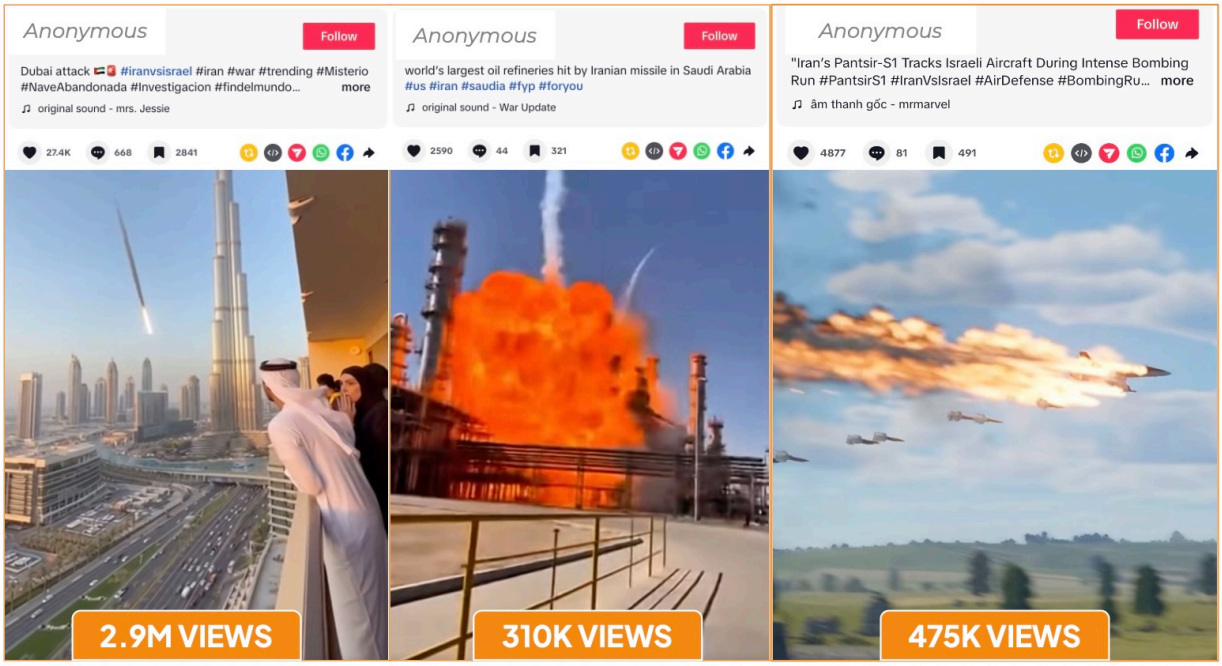
1. 이란이 지역 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

친이란 허위정보 캠페인은 이란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 강국에 대한 공격을 묘사한 AI 생성 딥페이크 영상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딥페이크 콘텐츠 중 일부는 사우디 석유 인프라 공격과 같은 실제 사건을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캠페인의 대부분은 선전 목적을 강화하고 이란의 군사적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완전히 조작된 시나리오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조작된 영상 콘텐츠는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다음과 같은 하위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증폭시키는 구조를 보인다:

- 이스라엘의 도시, 항구 및 군사 자산에 대한 공격 주장
- 미국 항공모함 및 군사 장비에 대한 공격 주장
-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및 주요 랜드마크에 대한 공격 주장
- 사우디 석유 정유시설 및 사우디·바레인 내 미국 자산에 대한 공격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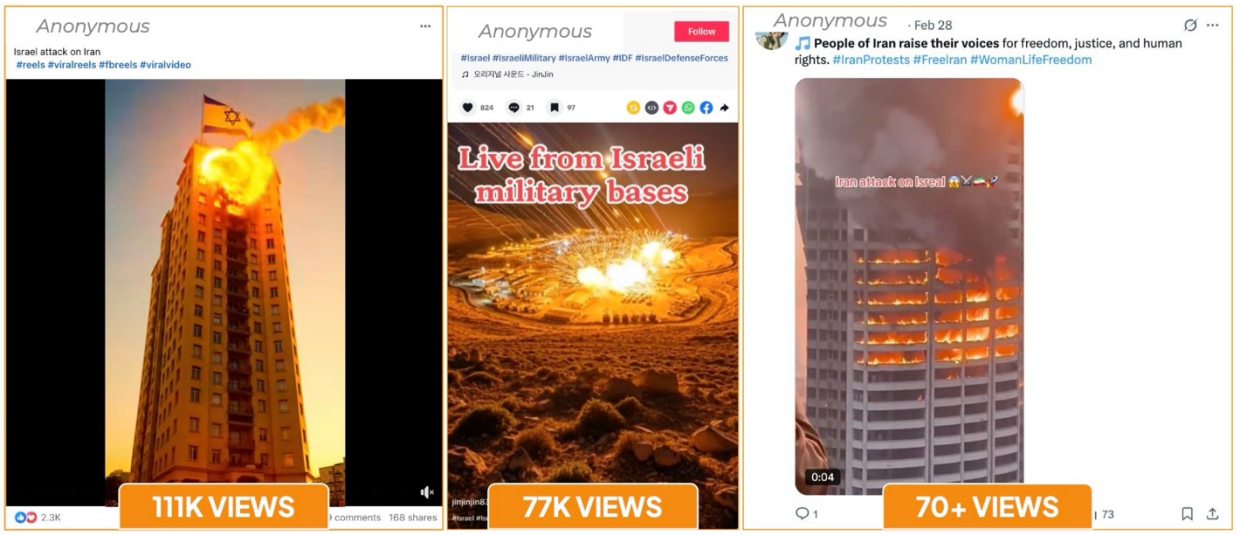


2. 이란이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

이스라엘은 해당 내러티브에서 핵심 표적으로 설정되며, 이 캠페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목적 하에 AI 생성 딥페이크 콘텐츠는 이스라엘 군사 기지, 전투기, 항구 및 주요 도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콘텐츠는 이를 입증할 검증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며, 이란의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중 우위 확보 및 전장에서의 성공을 강조하는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캠페인은 이란이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 내 인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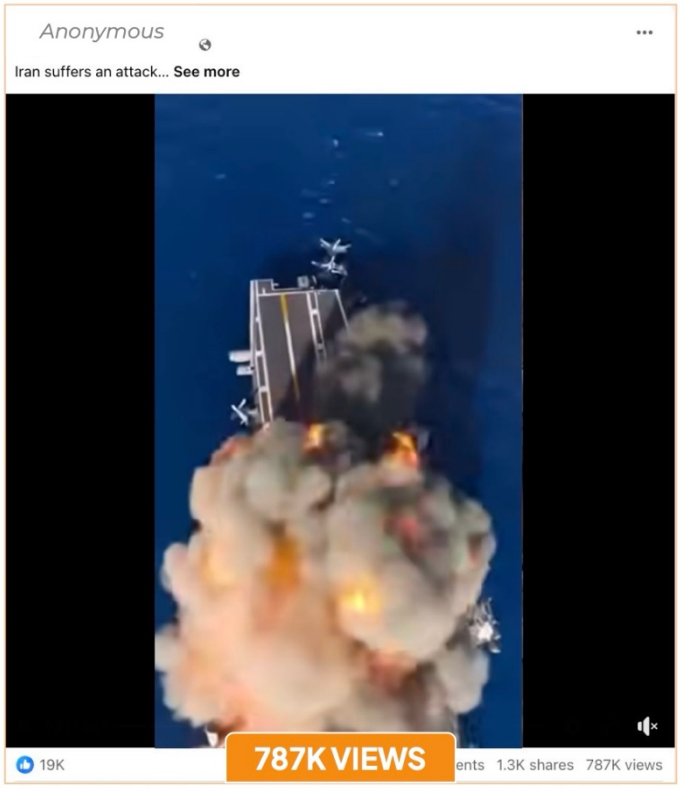


3. 이란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

유사한 방식으로, 친이란 정보전은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에 대한 대중 인식 역시 주요 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 항공모함은 이번 분쟁에서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군사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집중적인 공격 내러티브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보인다.

AI 로 생성된 시각 자료와 조작된 콘텐츠는 이러한 자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묘사되며, 이를 통해 미국 군사력의 우위와 억지력(deterrence)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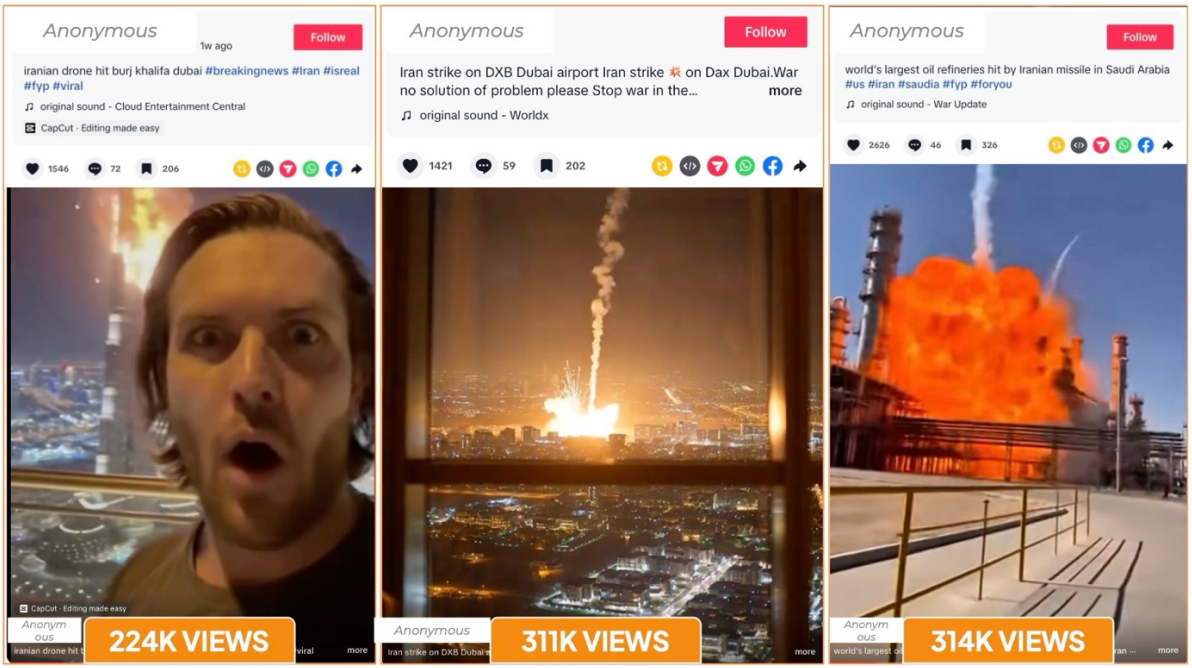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스페인어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라틴아메리카 및 전 세계 스페인어권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분쟁에 대한 글로벌 인식 형성에 개입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한다.



4. 이란이 두바이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

이란의 허위정보 전략에서 세 번째 하위 내러티브는 걸프 지역 국가, 특히 두바이를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및 로켓 공격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상당수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랜드마크인 부르즈 할리파를 전면에 활용하여 공격의 규모와 파급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내러티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콘텐츠는 서구권 브이로거나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사칭하여, 마치 실시간으로 파괴 현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연출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기법은 조작된 사건에 현실감을 부여함으로써 허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수용 및 공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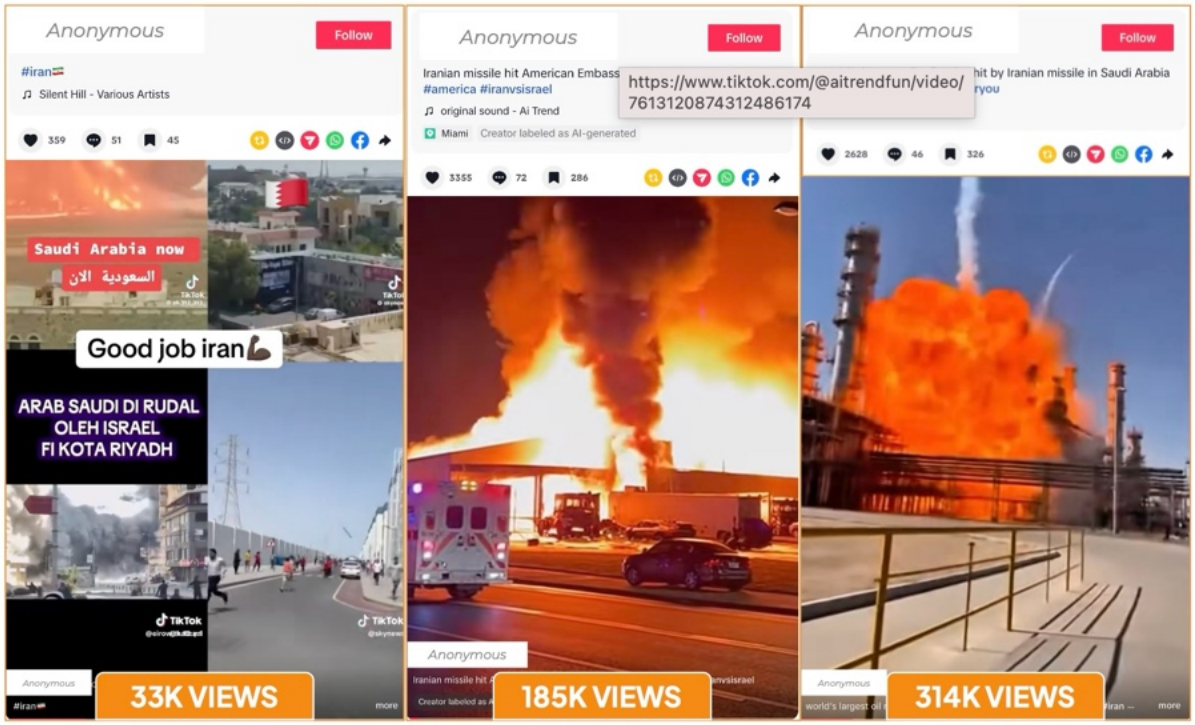


5.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

해당 내러티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며, 이란의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한 AI 생성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조작된 영상 콘텐츠의 상당수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미국 자산, 즉 미 대사관, 군사 시설, 사우디 석유 정유시설 등 전략적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묘사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규모 파괴와 극적인 폭발 장면을 강조하는 방식은 이란이 서방 및 걸프 지역의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역 행위자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AI 생성 영상과 실제 영상을 결합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공격 장면의 사실성이 강화되는 구조가 확인된다. 이러한 합성 콘텐츠는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실제 사건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 핵심 내러티브의 주요 주도 세력

첫 번째 내러티브, 즉 이란이 다수 국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산시키는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 중 하나로 TikTok 계정 @mrs..jessie7 이 식별되었으며, 동일한 이름으로 Facebook 계정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프로필은 조직적 허위정보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계정은 수개월간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분쟁 발생 직후 활동을 재개하며, 단기간 내 바이럴되는 AI 생성 영상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의 캡션에는 AI 생성 프롬프트로 추정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해당 영상들이 생성형 비디오 도구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주요 기술적 단서로 판단된다.

해당 TikTok 계정은 상당한 도달 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약 290 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연계된 Facebook 계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확산 수준을 보이며 플랫폼 간 확산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Cyabra

Active on
2 Platforms

Disinformation Posts
44

Posts Reach
3.3M Views

Geographic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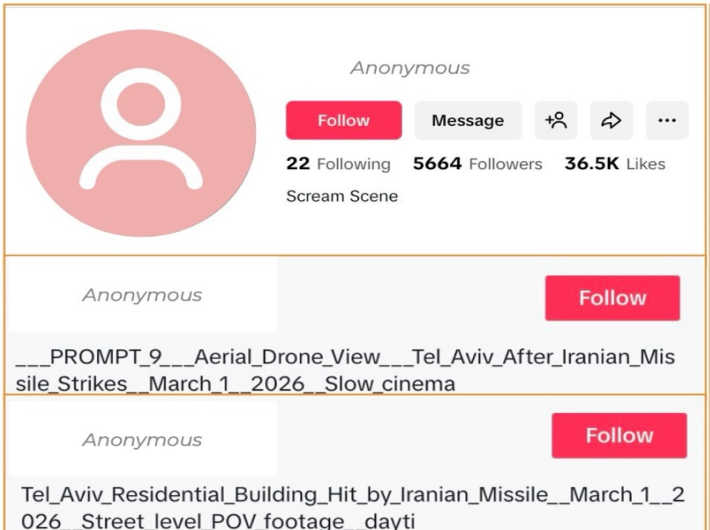
Fake Ac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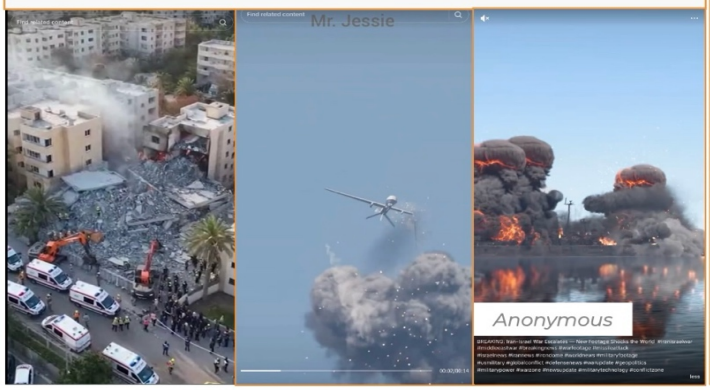
Key Leader Identified

Followers:	5,664
Likes:	36.5K
Views:	3.3M

Active TikTok Account

Active Facebook Account





#2 NARRATIVE ANALYSIS

1. 이란이 군사적·기술적 초강대국으로 묘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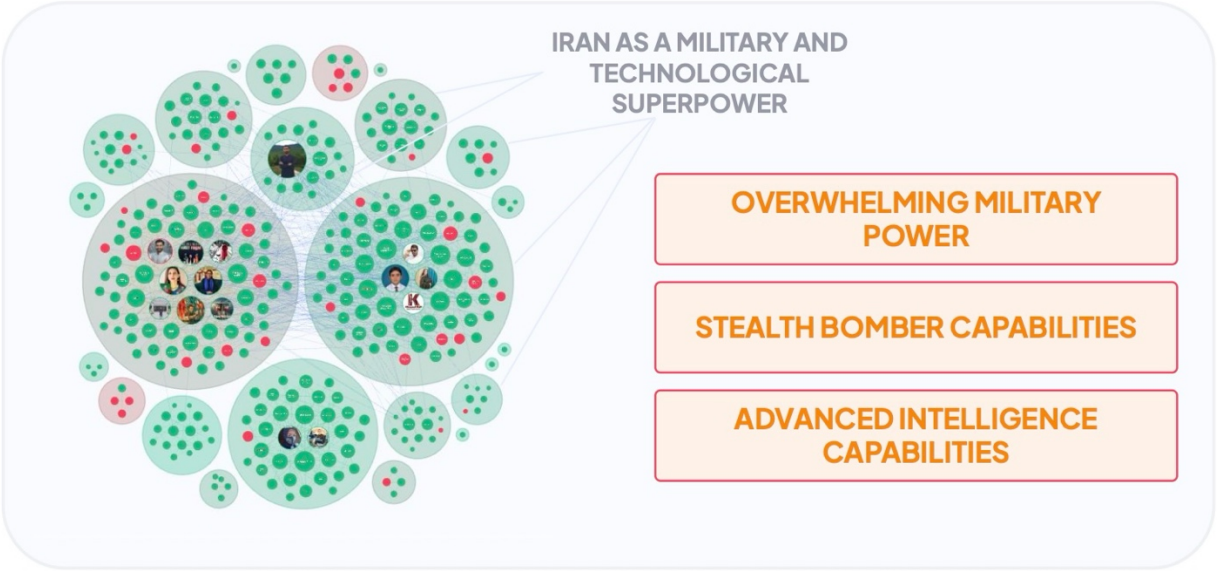
지역 내 적대국에 대한 공격을 묘사하는 수준을 넘어, 친이란 허위정보 캠페인의 또 다른 핵심 내러티브는 이란 군의 전력과 기술적 수준을 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로 생성된 영상은 압도적인 군사 능력과 전략적 우위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조작된 시각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 대규모 폭발 장면, 지하 기지, 대량살상무기(WMD)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 미국 B-2 폭격기를 연상시키는 이란 개발 스텔스 폭격기
- 고도로 발전된 정보·감시 시스템

또한 일부 콘텐츠는 이념적 메시지와 결합되어 유포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러 게시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인 “Fateh E Khaibar”는 역사적 이슬람 전투를 지칭하는 아랍어 표현으로, 반이스라엘 수사에서 구호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러한 표현이 영상 콘텐츠에 포함됨으로써 종교적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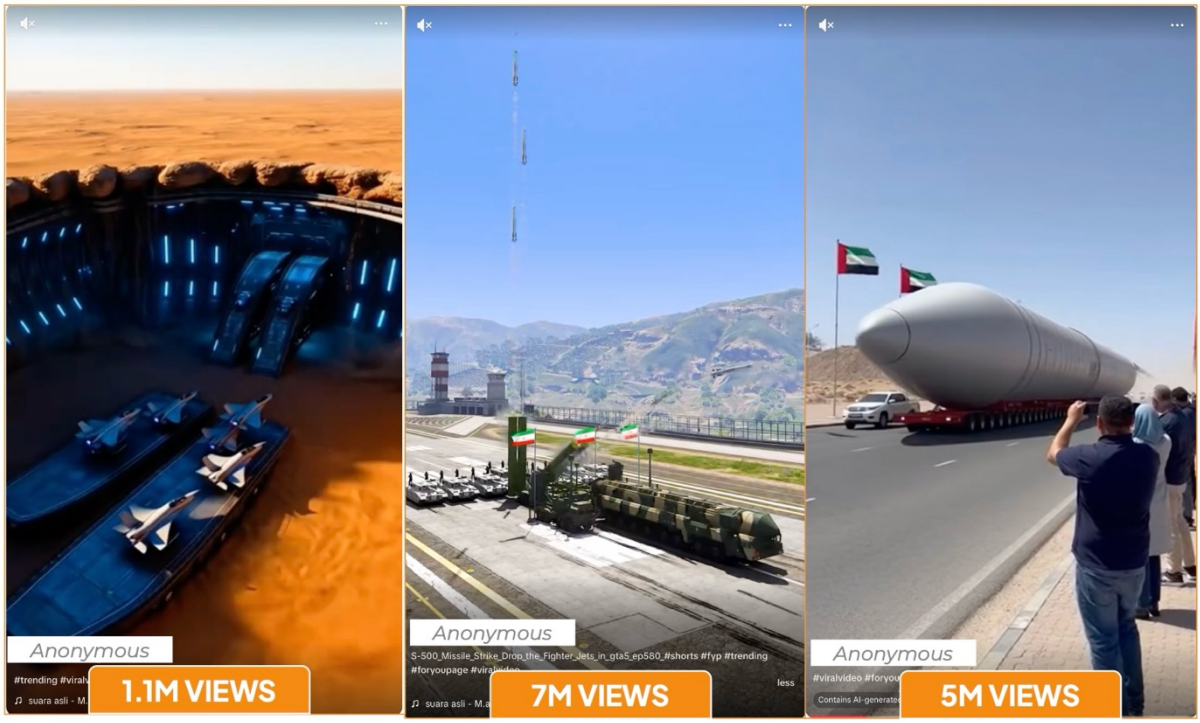
2. 대규모 폭발 장면, 지하 기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 이미지

본 내러티브는 대규모 폭발 장면, 지하 군사 기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를 묘사한 시각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해당 콘텐츠는 주로 AI 생성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극단적인 파괴력과 군사적 위협 수준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란을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사 강국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내러티브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이브라(Cyabra)는 TikTok 계정 @iranwar49를 해당 내러티브 확산의 주요 행위자로 식별하였다. 해당 계정은 과장된 WMD 이미지 및 폭발 장면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일부 콘텐츠는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확산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확산 패턴은 AI 생성 시각 콘텐츠, 반복 게시 전략, 고확산 플랫폼(TikTok)이 결합된 정보조작 캠페인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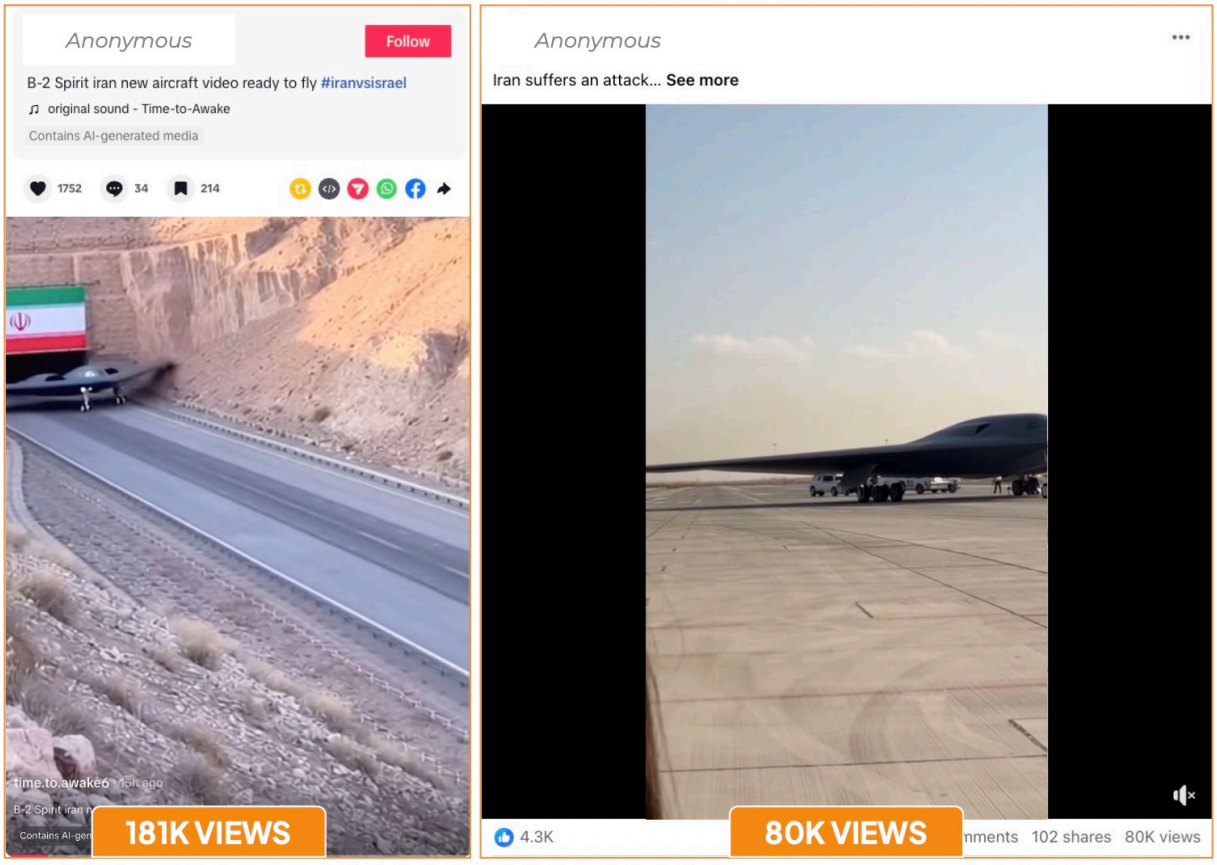


3. 이란이 개발한 것으로 묘사되는 스텔스 폭격기(B-2 유사)

이러한 시각 자료 중 하나로, 이란이 미국 B-2 폭격기와 유사한 스텔스 항공기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묘사되는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해당 콘텐츠는 주로 AI 생성 이미지 및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기술 수준과 무관하게 이란의 군사 기술력을 과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특징을 보인다.

이란-미국 간 적대 관계 맥락에서 B-2 폭격기는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상징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온라인 내러티브에서 강력한 상징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2025 년 6 월 22 일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Operation Midnight Hammer)'에서 이란 핵 시설 타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상징성은 더욱 부각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짜 계정들은 B-2 폭격기의 상징성을 차용하여, 이란이 동일 수준의 스텔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조작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AI 생성 콘텐츠는 실제 B-2 와 유사한 외형에 이란 군 표식 및 국가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이를 통해 이란이 첨단 스텔스 항공기를 설계·생산·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보인다.



4. 고도로 발전된 정보 및 감시 시스템

본 내러티브에서는 이란 군의 정보 수집 및 감시 역량이 고도로 발전된 것으로 묘사되는 시각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해당 콘텐츠는 주로 AI 생성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수준과 무관하게 이란 정보기관의 정교함과 조직력을 과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는 이란 군복을 착용한 여성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히잡을 착용한 인물과 유럽계 외모를 가진 인물이 혼합되어 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국가의 엘리트 정보 요원으로 묘사되며, 이란의 정보 역량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다수의 콘텐츠에서 동일한 아랍어 '승리' 배경음악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영상 구성과 연출 방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이는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작 방식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이란 정보기관이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적 내러티브의 일환으로 작동하며, AI 생성 콘텐츠, 반복적 연출, 상징 요소가 결합된 정보조작 캠페인의 특징을 보인다.

핵심 사례: 팔로워 2.2 만 명,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틱톡 계정

#3 NARRATIV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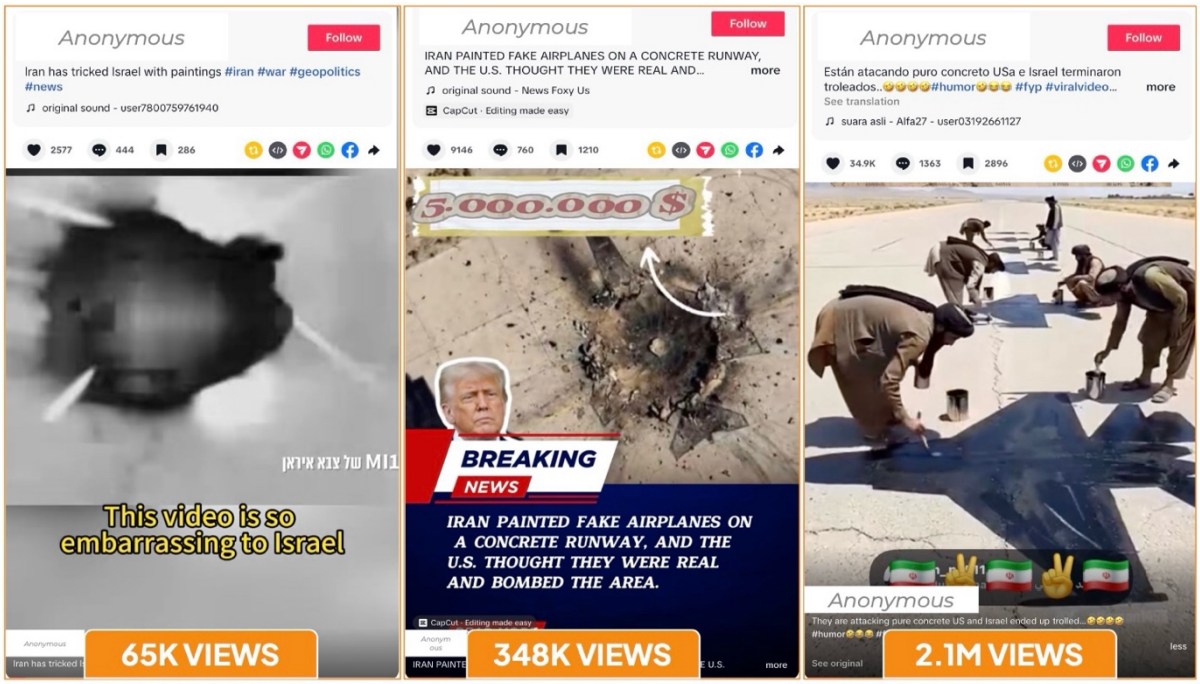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전략적으로 기만했다고 주장

본 내러티브에서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각 콘텐츠가 확산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해당 콘텐츠는 전장 상황과 관련된 실제 영상 또는 이를 변형한 AI 생성 영상과 결합되어 유포되며, 이란의 정보전 역량과 기만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2026 년 3 월 1 일, 분쟁 이틀째에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활주로에 배치된 이란 전투기를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후 친이란 허위정보 계정들은 해당 공격 대상이 실제 항공기가 아니라 활주로에 그려진 유인용(decoy) 이미지였다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콘텐츠는 이란 인력이 활주로에 항공기 실루엣을 그리는 장면을 묘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실제 전투기로 오인해 공격을 수행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상대국이 비효율적이고 기만에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실제 군사적 손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군사적 판단 능력을 약화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전략적 내러티브의 일환으로 작동한다. 이는 전장 정보와 AI 생성 콘텐츠를 결합해 상황 인식을 재구성하는 정보조작 캠페인의 특징을 보여준다.



IMPACT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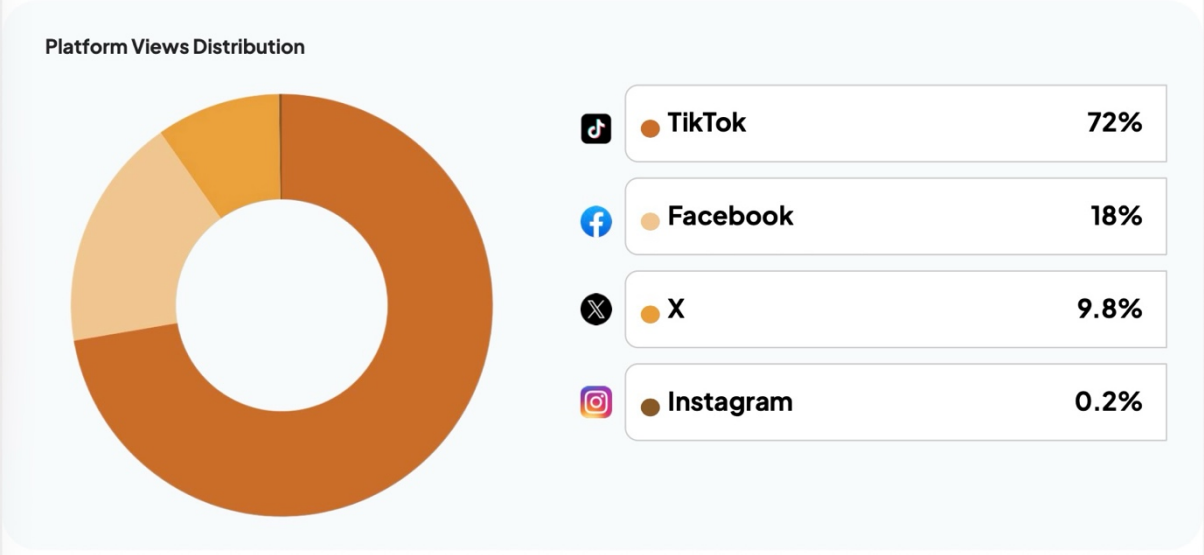
이란 허위정보 캠페인의 막대한 온라인 도달 범위

사이브라(Cyabra)의 분석에 따르면, 친이란 허위정보는 온라인 생태계 전반에서 높은 확산력을 보였으며,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3 만 7 천 개 이상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1 억 4,500 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940 만 회 이상의 참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ikTok 은 본 캠페인의 핵심 확산 채널로 확인되며, 1 억 500 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700 만 회 이상의 참여를 기록하는 등 전체 확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짧은 영상 중심의 포맷과 알고리즘 기반 확산 구조는 AI 생성 딥페이크 및 조작된 전쟁 콘텐츠의 대규모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Facebook 과 X 역시 주요 확산 채널로 작용하며, 두 플랫폼을 합쳐 약 4 천만 회에 달하는 추가 조회수와 200 만 회 이상의 참여가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내러티브의 가시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Instagram 은 전체 확산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확산 패턴은 AI 기반 허위정보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분쟁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가 내러티브 조작을 위한 핵심 채널로 활용되는 양상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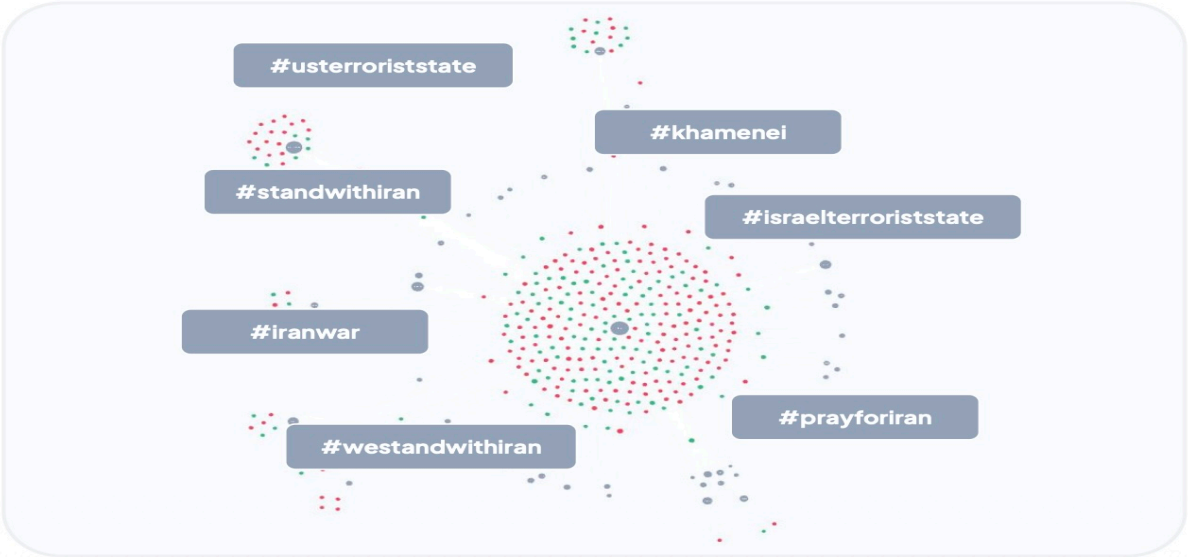


COORDINARION ANALYSIS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허위정보 활동의 명확한 징후

사이브라(Cyabra)의 분석에 따르면, 친이란 허위정보 확산 과정에서 명확한 조직적 패턴이 확인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온라인 담론이 아닌 구조화된 정보조작 캠페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동일한 내러티브의 대규모 확산
   수천 개의 게시물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친이란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양상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강화하고 이란의 군사적 성과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보인다.
2. 영상 및 캡션의 반복 사용
   동일한 AI 생성 영상과 유사한 캡션이 다양한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작 방식에 따라 중앙에서 생산·배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고정된 해시태그 클러스터 사용
   #standwithiran, #westandwithiran, #israelterroristate, #prayforiran 등의 해시태그 조합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콘텐츠의 가시성과 알고리즘 기반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4. 집중적인 게시 패턴 (Burst Posting)
   특정 시간대에 게시물이 집중되는 동기화된 활동이 관찰되며, 단시간 내 대량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Burst Posting' 패턴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3 월 5 일 07:00(UTC)에 1,053 건의 게시물이 업로드된 이후, 같은 날 11:00(UTC)에 추가로 1,191 건이 게시되는 등 시간 기반 조직적 확산 구조가 나타났다.



SOURC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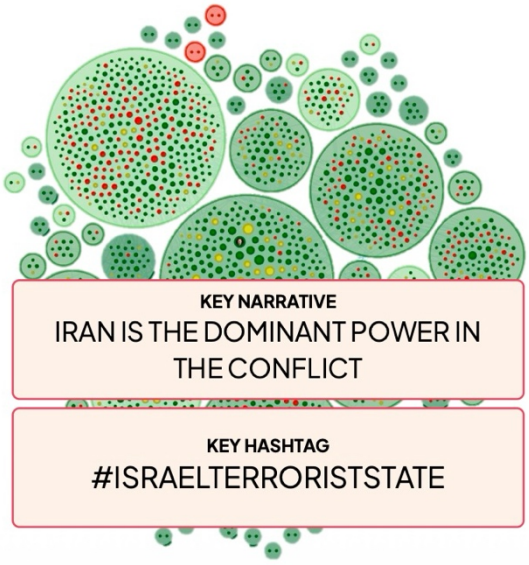
과거 이란 연계 정보작전과의 연속성

사이브라(Cyabra)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친이란 허위정보 캠페인은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과거 이란 연계 정보작전과 연결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분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생성된 활동이 아니라, 일정한 전략 하에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정보조작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러 행동 양식과 내러티브 패턴은 2024 년 4 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탐지된 캠페인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두 사례 모두에서 이란을 분쟁의 주도적 행위자이자 최종 승자로 묘사하는 메시지 전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이란의 군사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일관된 프레이밍으로 분석된다.

메시지 확산 구조에서도 유사성이 확인된다. 현재 캠페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israelterroriststate 해시태그는 과거 이란 연계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인식을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러티브, 해시태그, 메시지 구성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이번 활동이 과거 식별된 이란 연계 허위정보 캠페인과 운영적 연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당 활동이 개별 사건이 아닌, 장기적으로 설계된 정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ONCLUSIONS

이번 분석 결과, 'Operation Epic Fury / Roaring Lion War'를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 담론은 조직적으로 설계된 대규모 허위정보 작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만 개의 가짜 계정과 AI 생성 영상이 결합된 형태로 소셜 미디어 전반에 확산되었으며, 해당 캠페인은 1 억 4,500 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확산력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통 수준을 넘어, 특정 내러티브를 대중 인식에 구조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작전은 이란을 분쟁에서 지배적이고 우위에 있는 행위자로 묘사하는 동시에, 적대 세력을 약하거나 기만당한 존재로 프레이밍하는 명확한 선전 목적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조작된 전쟁 영상, 과장된 군사 능력 표현, 지역 피해를 연출한 콘텐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를 보인다.

또한 본 캠페인은 자연적 확산이 아닌 조직적 운영 패턴을 기반으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 내러티브의 반복, 유사한 영상 및 캡션의 재사용, 고정된 해시태그 클러스터 활용,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동기화된 게시 활동 등은 전형적인 정보조작 캠페인의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간 내 정보 환경을 장악하고, 분쟁의 핵심 시점에서 온라인 담론을 선점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작전은 사이브라(Cyabra)가 과거 식별한 이란 연계 허위정보 캠페인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2024 년 4 월 이란-이스라엘 분쟁 이후 확인된 메시지 전략, 내러티브 구성, 확산 방식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번 활동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으로 설계된 이란의 지속적 정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브라 코리아 (Cyabra Korea)
Tel. 02-2202-2588 | E-mail. info@futrium.com
www.futrium.com/cyabra

** 자료 출처 및 이용 안내 **
본 보고서는 사이브라(Cyabra)가 발간한 글로벌 선거 관련 디지털 정보 환경 분석 리포트 및 공개된 온라인 데이터를 참고하여 편집·재구성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사례와 분석 내용은 사이브라(Cyabra)의 글로벌 연구 자료와 리포트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원문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된 참고 자료로, 보고서의 편집·구성 및 해석에 대한 책임은 본 보고서의 작성 및 편집 주체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인용하거나 활용할 경우 사이브라(Cyabra) 및 본 보고서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2026 Cyabra Korea. All rights reserved.